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큰 호응

광주 시내 160개 정류장에 설치·가동
실시간 위치 파악·휴대전화로 확인도
일부 오작동·서비스 안돼 아직 불안정

회사원 안경석(3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07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확인한 후 집에서 출발한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의 시간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서다.

조대여고에 다니는 봉윤지(여·18·고2)양은 하굣길에 광주시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선대 앞에서 01번이나 17번 시내버스를 타야한다.

예전에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두 버스 중 빨리 오는 버스를 탔지만, 이젠 많은 정류장을 거치는 17번 대신 빠른 01번을 골라 탈수 있다. 타고자 하는 시내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덕분이다.

광주시가 지난달 16일부터 '버스도착안내서비스'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총 2천300여 곳.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문화전당·동구청·서구청·전남대·조선대 등 160곳에 설치돼 있으며, 시는 2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각 시내버스에 송수신 단말기를 장착시킨 뒤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무선랜 통신망을 통해 버스위치·정류장 도착시간·운행상황 등을 시민·운전자·버스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승객들은 정류장 안내단말기를 통해서 노선·도착시간·버스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613-5700)도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이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 : //bis.gjcity.net)를 통해서도 운행정보를 알 수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준수(45·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아서 제일 좋다"면서 "출퇴근 시간의 잦은 교통체증으로 시내버스 도착시간의 불안함을 없앨 뿐더러 골라 탈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설치된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운림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오전 11시40분부터 1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30여대의 시내버스 안내 중 적중률은 60%에 불과했다. 안내 중간에 시스템이 꺼지기도 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 로터리 정류장이나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정류장 등은 시스템은 켜져 있지만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대학교 정문 정류장이나 동구 충장로 YMCA 정류장의 적중률은 100%였다.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김준영 계장은 "장마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 설치와 운영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화전당(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안내 시스템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제결혼 이민자 절반 이상
"한국말 어려워 적응 힘들어"

북구청 357명 설문, 취업률 37% 불과

한국인과 결혼해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이민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한글과 문화·관습의 차이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률은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북구청은 2일 "최근 관내 국제 결혼 이민자 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한글 교육 강화, 취업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 357명 중 55.2%인 197명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화·관습·의사소통 문제'를 꼽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53명(14.8%) ▲자녀 양육 38명(10.6%) ▲사회적 차별과 편견 28명(7.8%) ▲친구 및 상담자 부재 20명(5.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74명(20.7%)이 '언어 장벽'을 들었고 ▲'자녀 양육방법 및 정보 부재'가 62명(17.4%) ▲사회적 편견 28명(7.8%) ▲기타 31명(8.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취업자도 10명 중 3.4명에 그쳤다. 이들은 전업주부가 156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이 46명(12.9%) ▲단순 노무는 46명(12.9%) 순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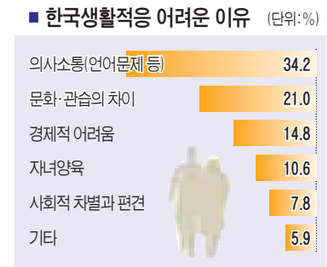
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단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95명(56.4%)이 '없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이민자들이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민자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는 150명(42%)이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교육 89명(24.9%) ▲취업 교육 및 알선 57명(16%) ▲고충 상담 기관 마련 57명(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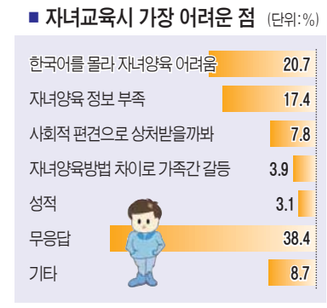
북구에는 국제결혼 이민자 713명이 살고 있으며 중국인이 123명(34.5%)으로 가장 많고, 한국계 중국인 68명(19%), 베트남인 65명(18.2%), 필리핀인 45명(12.6%), 일본인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성이 334명, 남성은 24명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한국생활적응 어려운 이유 (단위:%)



■ 자녀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광주시 청소용역원 구제신청 자진취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2일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전욱·이하 공공노조)가 지난 4월13일 광주시청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 행위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지난달 28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현 광주시 청소용역 업체인 C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지난달 28일 각하 판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5월31일엔 공공노조가 H사 등 전 청소 용역업체 5개사를 상대로 낸 10건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공공노조가 광주시와 청소용역 업체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각하·취하됐다.

공공노조 전욱 지부장은 "구제신청을 취하한 것은 인권위에 제소한 내용과 겹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대표자 회의

광주시 서구청은 2일 오전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주민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소음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진〉

소음 피해지역인 유덕·서창·치평동 주민 대표 5명과 부구청장, 구의원 등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별 대표와 구의원 등의 협의를 통한 업체선정 ▲용역기관 선정 후 서구의 심사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서구청과 주민들은 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보상 및 공군부대 이전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과학윤리 강화

광주과기원 석·박사과정 대상
연구윤리·과학철학 강좌 개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와 과학철학을 주제로 한 특별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한다.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데다 '황우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과학기술자의 연구윤리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광주과기원은 "3일부터 7주 동안 진행될 여름 계절학기에 '연구윤리 및 과학철학'에 중점을 둔 특별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강좌에는 과학철학 분야에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윤리 분야에 박은식 전남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등 각 분야에 저명한 교수들이 초빙돼 강의한다.

강좌는 통계와 윤리, 바람직한 과학연구와 과학부정행위의 경계 짓기, 이해관계의 충돌과 저자결정 문제 등 연구윤리 분야 3개, 인간과 기계의 경계, 과학과 예술, 과학과 건축, 융합과 과학적 창의성 등 과학철학 분야 4개로 구성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들 '남방셔츠' 근무

여름철 에너지 절감

여름철 광주시 공무원들의 근무복장이 '남방셔츠와 바지'로 간소화된다.

광주시는 2일 "시 산하 공무원 6천400여명이 오는 8월말까지 상의는 점퍼·남방셔츠· 니트웨어 등을 입도록 했으며, 하의는 바지 등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에도 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간소복을 입게 되면 체감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가게 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만, 공직자들이 외국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 등에 참석할 때는 정장을 입도록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